

-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통권 제 160호

발행일 : 2006년 2월 5일

발행처 :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

봉사 사역본부, 주차 안내부와 함께할 봉사자 모집

“ ‘一(일)從(종)免(면)許(허)’ * 소지하신 성도님을 찾습니다.”

함즐함울은 지난 호에 이어 봉사 사역본부를 소개 한다. 오늘은 부족 한 봉사자 인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차안내부를 자세히 설명한다.



주차안내부 : 매주일 예배 때 1부에는 200여대, 2부에는 600여대, 3부에는 800여대의 차량이 학교교정 곳곳에 주차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많은 차량의 교내 출입이 원활하도록 안내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보살피는 주차 안내부 인원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조금도

쉴 틈이 없이 모든 봉사부원들이 다 달려들어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다. 더군다나 주차 안내를 하다보면 몇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은 주차안내부가 주일예배 시 차량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부탁의 내용이다.



“예배 시간을 지키면 혼잡시간이 줄어듭니다.” : 간혹 운전자와 주차 안내부원 사이에 실랑이 하는 아

답지 못한 모습이 빚어지곤 한다. 예배에 늦은 관계로 마음이 급해 차량을 아무 곳이나 주차하려는 성도와 그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도록 안내하는 봉사부원 사이에 마찰이 생기기 때문이다. 10-20분 미리 교회에 오는 센스는 주일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게 함은 물론 주차혼잡을 덜어 더욱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 혹 늦게 되더라도 주차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봉사부원의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 (2면에서 계속)

*一從免許는 함즐함울 편집자가 ‘일종면허’ (一種免許:도로교통법)의 음을 따서 만든 일시적인 용어로써 ‘예수님의 으뜸가는 일꾼 면허’, 즉 모든 Christian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license라는 뜻이 부여된 단어이다.)

수화/영어 통역서비스

4면



주일2-3부는 영어 통역서비스, 3부예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

2006년 119사역팀 가동

2면



지난해 폭설로 무너진 장애인 시설의 복구현장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교회학교 영아부 소개

2면

중국선교 보고서 3

4면

오늘 오후 3시 30분 제직수련회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장로회신학대학 임성빈교수의 특강으로 교회의 사회통합적 역할 제시



오늘 오후 3시 30분 중 예배실에서 2006 제직 수련회가 열린다. 제직수련회의 대상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물론 주님의교회를 섬기는 각부서와 팀의 모든 사역자들이다. 이번 제직 수련회의 강사인 임성빈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기독교와 문화) 교수로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는 2006년 표어에 부응하여, 갈등과 반목의 세상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교회의 통합적 리더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임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21세기 한국사회 갈등원인을 포스트모더니즘, 소비문화 그리고 세대간의 역사적 경험차로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사회통합적 역할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된다. 그는 교회의 사회통합적 역할을 윤리·가치관의 제공, 전통·대중문화와의 관계성 성립,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극복이라는 면에서 심도 있게 바라볼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 통합적 역할 강화를 위한 교회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해답은 신앙과 삶의 일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 만인제사장설에 대한 재평가에서 찾게 된다.

제직수련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임성빈교수의 글,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있다. 이것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연 한국교회가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사회적 역할이란 무엇일까?...과연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한국사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가치관을 실천하며 사는가? ‘작은 자와 함께 하는 삶’을 나의 가치관으로 하며 살고 있는가? 과연 한국사회는 한국교회를 보고 이러한 ‘하나님 사랑·이웃사랑’, ‘작은 자와 함께 하는 삶’의 가치관으로써 살아가는 무리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가?...이제부터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3면에서 계속)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위한 4부예배



‘오늘’은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소중한 도구이자 예배 그 자체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 하지 마시고 ‘오늘’로 초대하십시오. 4부 예배 ‘오늘’은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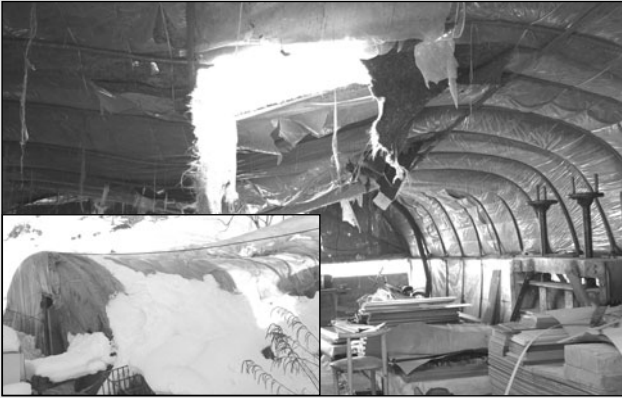
CCM남궁송옥

“시냇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물속에 돌맹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쭉날쭉한 돌맹이가 있기 때문에 시냇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들쭉날쭉한 일상의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이번 주 오늘에서는 한 가정이 출연하여, 가족이기 때문에 껴야 하는 다사다난한 일들 속에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 또한 오늘 연주팀의 아름다운 음악과 문동학목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진다. 다음 주일(12일)에는 CCM 사역자 남궁송옥과 장근희(30CUP 보컬)의 듀엣 콘서트가 열린다.

119 사역팀

2006년 제1차 사역 활동

공장 복구공사 참여 요청



지난해, 호남 지방에 15일간의 폭설로 인하여 장애인 시설인 소망 재활원의 나무빔 공장 시설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교회 119사역팀에서는 복구공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월6일 월요일부터 현장에 투입하여 봉사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1. 봉사기간 : 2월6일(월) ~ 2월10일(금)
2. 봉사장소 : 전주 소망재활원
3. 연락처 : 팀장 김영중 안수집사(016-741-8309)

오늘 기도



주님이 주신 생수가 흘러 넘쳐 서로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1면에 이어서)

주차 안내부와 함께할 봉사자 모집

“‘一(일)從(종)免(면)許(허)’ * 소지하신 성도님을 찾습니다.”



“‘깜박이’를 켜세요. 주차와 출입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 교문에서 출입을 할 때 좌우 방향등만 제대로 켜

주어도 주차 안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장의 대부분 차량운전들은 이러한 상황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다. 강남의 어느 백화점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때 비상등을 켜게 한다. 이유는 출차와 입차를 구분하여 주차장안의 정체를 줄이고 원활한 차량흐름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출입할 때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면 안내부원을 도와 정문의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센스를 지키는 크리스천 운전자다!

주차안내봉사는 그 성격상 땀 흘려야 하는 힘든 봉사이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하나님 사랑! 아기 사랑!” 영아부입니다.



습을 통해 성경 내용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정학습지(아기 이해, 교육 주제, 신앙 상담, 신앙교육 자세 등)를 성경공부 자료와 함께 가정으로 보내 가정과 연계 할 것입니다. 또한 아기의 신앙 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세미

2006년 영아부에서는 마 23:37-40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사랑! 아기 사랑!”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힘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영아부에서는 영아부 어린이들의 발달에 맞는 눈높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함께 예배드리는 엄마와 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기들 스스로 찬양과 기도와 교육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아기들에게 말씀, 기도, 찬양, 봉헌을 통해 예배에 대한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 것을 우선 하며, 둘째, 교사와 엄마의 무릎과 품 안에서, 영아부 예배 안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셋째, 이와 연계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교회는 낮

설지 않고 친숙하며 주
일 마다 즐겁
게 예배드
리는 곳임
을 인식하
게 하며,
넷째, 성
경체험학

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사랑! 아기 사랑!” 영아부를 위해 부장 이회숙(권사)/ 담담 김갑수(권사)/ 총무 최경원/ 서기팀 임지혜, 노유미/ 회계팀 안승진, 최정원/ 서무팀 김희연, 유지연/ 찬양팀 조은영, 안승진/ 반 교사 김향순, 조은경, 박중순, 김진숙, 박성준, 장혜경, 최호성, 오영숙, 김순자, 최은정 선생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교사들은 미래의 엄마인 20대부터, 아기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자녀들이 성장한 40~50대 이미 자녀들을 출가시킨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아기들에 대해서는 안목과 식견,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갖춘 교사들이십니다.

2006년 영아부 교사들은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아기들의 섬기미가 되자. 둘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아기들에게 열어주는 교사로서 이끄미가 되자. 셋째, 하늘에 속하는 위엣 것을 추구하는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도우미가 되자”는 다짐을 하며 올 한 해에도 열심히 봉사할 것입니다.

출생부터 만 3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매 주 11시 30분 영아부 예배실로 인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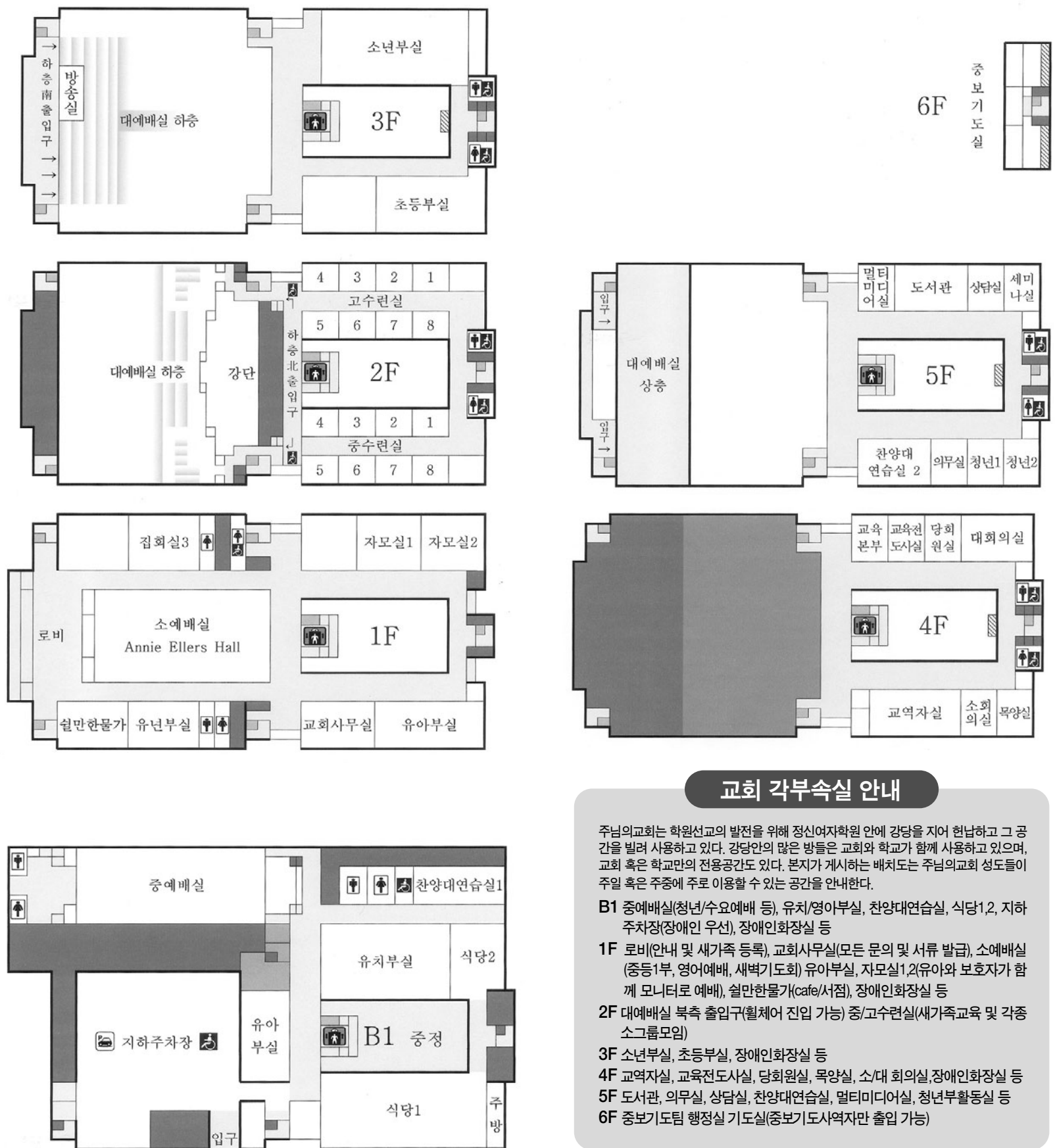
하나님을 닮은 교사들이 아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 공급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에 틀림없다. 봉사 사역본부를 담당하는 박의일, 이호 목사는 봉사부의 이와 같은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며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주차안내부 봉사부원들은 매 주일 아침 8시 40분에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부실에서 말씀과 기도로 아침 경건회를 갖고 주차안내 사역에 들어간다. 현재는 사역에 필요한 인원의 절반 정도의 인원으로 매 주일마다 힘겹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봉사사역본부는 ‘신년에 무엇으로 봉사할까? 고민하는 건강한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봉사역본부 자원봉사 신청 문의

봉사사역본부 : 박의일 목사 011-334-4076, 이호 목사 011-496-2334

차량부 : 김동일 안수집사 011-279-6610, 총무 이재덕 집사 010-6346-3551



교회 각부속실 안내

주님의교회는 학원선교의 발전을 위해 정신여자학원 안에 강당을 지어 헌납하고 그 공간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강당안의 많은 방들은 교회와 학교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 혹은 학교만의 전용공간도 있다. 본지가 게시하는 배치도는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주일 혹은 주중에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내한다.

B1 중예배실(청년/수요예배 등), 유치/영아부실, 찬양대연습실, 식당1,2, 지하 주차장(장애인 우선), 장애인화장실 등

1F 로비(안내 및 새가족 등록), 교회사무실(모든 문의 및 서류 발급), 소예배실(중등1부, 영어예배, 새벽기도회) 유아부실, 자모실1,2(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모니터로 예배), 실만한물가(cafe/서점), 장애인화장실 등

2F 대예배실 북측 출입구(휠체어 진입 가능) 중/고수련실(새가족교육 및 각종 소그룹모임)

3F 소년부실, 초등부실, 장애인화장실 등

4F 교역자실, 교육전도사실, 당회원실, 목양실, 소/대 회의실, 장애인화장실 등

5F 도서관, 의무실, 상담실, 찬양대연습실, 멀티미디어실, 청년부활동실 등

6F 중보기도팀 행정실 기도실(중보기도사역자만 출입 가능)

(1면에 이어서)

오늘 오후 3시 30분 제직수련회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장로회신학대학 임성빈교수의 특강으로 교회의 사회통합적 역할 제시

이번 제직 수련회를 기획한 이창현 목사는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것을 소원하며 기도로 준비했다

고 전했다. 제직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임성빈교수의 강의 전문이 실린 제직수련회책자와 권사회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와 간식을 제공받는다. 찬양인도는 이상호전도사와 청년부 새벽

이슬팀이 맡는다.

What 제직수련회

When 2월 5일(오늘) 오후 3시 30분

Where 지하 중예배실

주일 3부 예배, 청각 장애우를 위한 수화 통역 서비스 영어권 성도 위한 영어통역 서비스 및 영어예배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장애우사역팀」에서는 1월 둘째 주일부터 3부예배 시 1층 장애우석에(강단을 바라보고 왼쪽 가장자리 좌석열의 앞줄)서 청각 장애우를 위한 수화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역은 장애우 사역팀 총무인 최영숙 집사가 직접 맡고 있다. 최집사는 설교는 물론 기도와 성경봉독 등 예배인도자의 맨트도 수화로 전달한다.

예배에 참석한 청각장애우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은 진지하고 평화롭다.

현재는 소수의 청각 장애우만이 참석하는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예배수화통역이 필요한 장애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또한 주일 2·3부 예배에는 영어권 성도를 위한 영어통역서비스가 있다. 대예배실 상층로비에서 이

를 쓰고 이어폰이 달린 수신기를 받으면 예배실 안에서 동시에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어통역서비스는 목양사역본부의 통역사역팀(부서장 한진희집사)에서 맡고 있으며 팀원들이 원고 번역 및 동시통역을 맡고 있다.

English translation is provided every Sunday, during the second and third worship services for our English-speaking members. Available

at the upper level of the main worship hall, the translation service can be obtained at the upper lobby after writing one's name on the sign-out sheet. Via a headset, members can receive real-time English translation throughout the worship. The English translation service is offered by the Translation Ministry Team, led by Deacon Han Jin Hee.

또한 주님의교회는 주일 오후 영어예배가 있다. 영어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 교회 일층 로비에 위치한 소예배실(Annie Ellers Hall)에서 드려진다. 영어예배는 한국어 거주 혹은 여행 중인 영어권 성도들을 위한 예배이다. 영어예배는 주님의교회 영어사역을 담당하는 전임사역자 나현수전도사(Pastor Mike Ra : 한국인 2세, California 출신)가

담당하고 있다.

In addition, an English language worship service is available for those who wish to worship in

English at 1:30pm at Annie Ellers Hall. Annie Ellers Hall is located at the first floor lobby directly across from the main entrance. The English worship service is geared for those who need an English environment in order to worship and is conducted fully in English. The English worship service is offered by the English Minist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led by Pastor Mike Ra, a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 from California.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이 없다. 또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불편할 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수화통역과 영어통역서비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2005 중국선교 보고 시리즈 3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에 취하고

남겨진 과제,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시 22:26-27)"

주의 말씀을 읽으며 필자는 이곳 중국 땅의 많은 외국 선교사들과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먹고 배부르며, 영육간에 소성되고,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노래가 하늘까지 울려 퍼지는 '설만한 물가'가 되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가정교회 출신 선교사들이 몸소 자비량 양식을 가지고 열방으로 떠나는 날이 곧 올 것을 바라며 돌아왔다. 유선교사의 비전은 선교센터가 ①중국의 용의 문화와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가는 곳, ②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선교지의 문화를 교류하는 곳, ③주지주의적 섬김이 아닌 몸으

로 섬기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선교가 21세기 새로운 선교의 모델로 자리 잡는 곳, ④자비량 선교기업의 불씨를 나누는 곳, 그리고 ⑤회교권·힌두권·북한 선교사를 목양하는 센타로서 자리 잡는 것이다.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남은 문제는 선교교육 전담 사역자와 중국어, 영어, 회교권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의 파송이 절박하다. 이곳의 사람들은 공장직원들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전원이 작업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작업, 운동, 교육 중에서 선택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은 자비량 선교를 위하여 영성훈련 및 공장건립과 상품개발을 위하여 땀 흘리며, 당대에 불가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땅 끝 예루살렘에 입성(Back to Jerusalem)하여 온 땅이 평화의 도성이 되는 날을 기대하며, 목숨 바칠 각오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교회의 성도들이 이 신앙공동체가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길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선교교육을 받은 전문 선교사를 파송하고 공장시설을 입주하는 등 커다랗고 장기적인 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해외선교봉사, 주일 학교 학생들의 수련회 참여, 필요한 생필품 등의 물자 및 재정적 후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

필자는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빌립보서」 집중 강해설교로 말씀에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고, 그들의 순수열정에서 배어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면서, 또 다른 초특급 단기 선교의 아름다운 모형을 체험했다. 주님의교회를 통하여 귀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해외선교부 중국선교에 관한 보고를 마친다.

해외선교부 중국선교팀장 이 희 숙

선교에 관련하여 말씀교육, 언어교육, 문화교류, 기업선교 공장설립, 증보기도 등 어느 형태라도 도움을 주실 성도들은 주님의교회 박혜경 선교간사(011-9861-7815), 홍민기 목사(010-3121-4256), 이희숙 권사(018-281-5728)에게 문의하면 된다.

